

A Study of Research-Counselling Professor System  
for the Promotion of Reference Service in University Library

# 大學圖書館의 參考奉仕 促進을 爲한 方案 摸索

—서울시내 4개 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金 萬 碩  
弘益大學校圖書館司書

編輯者註：本稿는 1975年度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司書教育專攻 碩士學位論文의 要約이다.

## 1. 序 論

###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오늘에 있어서 韓國의 大學들은 高等教育 改革이라는 물결속에 과거 비능률적이고 피동적이고 미온적인 教育方式에서 서서히 벗어나려 하고 있다. 과거 教授의 講義一邊倒의 教育方式에서 脫皮하고 있는가 하면 늘 受動的이던 學生들의 學習자세도 그들 自身の 폭넓고 깊이 있는 學問陶冶를 爲해 能動的으로 勉學에 힘쓰는 모습들이 점차 윤곽을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일면 教授들의 課題부여가 顯著히 늘어나고 있으며, 文教部는 이미 來年度부터 卒業論文制과 綜合試驗을 實施할 計劃을 樹立한 바 있어 大學의 質的 發展을 爲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음을 認知할 수 있겠다. 이를契機로 大學圖書館의 利用者도 前例없이 雲集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大學街에 勉學空氣가 잘 造成되고 있음을 實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現實을 비추어 보건데 대학도서관은 過去의 既存 施設과 장서 및 호린 奉仕體制에 依存하여 革新 없는 안일한 자세로 繼續 運營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먼저 強調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大學의 質的인 發展은 우선적으로 大學圖書館의 質的인 發展이 前提要件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大學圖書館의 質的인 發展을 爲해서는 무엇이 問題인가 그것은 大學圖書館의 存在意義를 想起해 보면 理解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大學圖書館의 存在意義는 그 大學의 教育과 研究計劃을 바람직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데 있다. 이같은 目的을 效果의으로 遂行할 수 있는 最善의 奉仕制度가 곧 參考奉仕이며 大學圖書館의 중핵인 것이다.<sup>1)</sup> 따라서 大學圖書館의 質的 發展을 爲해서는 參考閱覽室을 發展시켜야 하며, 그러기 爲해서는 參考奉仕를 促進시켜야 한다는

論理를 展開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곧, 參考奉仕 本來의 目的과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對閱覽者 奉仕가 그들에게 실제 어느 程度 滿足感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主要 關鍵이므로 그들을 直接對象으로 調查研究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다시말해서 閱覽者들은 現實의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奉仕方向은 어디로 돌릴 것인가 등등을 摸索하여야겠다. 아울러 現今의 大學圖書館에 있어 參考司書는 勿論 主題專門司書도 제대로 確保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制度的인 確立도 尠감하여 이를 改善보완하기 爲한 方案으로 研究指導教授制을 提案하려는데 本研究의 意義와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本 研究는 過去의 參考奉仕에 관한 문헌조사 研究를 토대로 하여 現 大學圖書館 參考奉仕 體制에서의 閱覽者를 對象으로한 參考奉仕 實態를 分析 檢討하였으며 나아가 未來의 參考奉仕를 보다 促進시키기 爲한 進路를 摸索하고자 研究指導教授制을 實施하는 方案을 研究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또한 本 研究에서는 미리 準備한 設問書를 配付 및 回收하여 研究資料로 使用하였으며 標集對象은 延世大學校를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弘益大學校 등 4개校의 圖書館 閱覽利用者 500名을 無選標集으로 하였다. 여기서 회수율은 76.6%, 유효율 96.3%를 보였는데 이 資料의 處理는 弘益大學校 附設 電子計算所에 依頼하여 處理하였다. 또한 資料處理 과정에서 크게 나누어 單純分析과 複合分析을 병행시켰으며 前者의 境遇엔 各 設問에 對한 全體的 反應과 大學別·教授別·學生別로 나누어 다시 問項別로 反應을 分析하였다. 後者의 境遇엔 研究目的에

1) 安永柱,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參考奉仕의 問題點" 도서관, 109(1966.9) p.5

따라 相互聯關 分析을 했다.

### 3. 用語의 定義

本 研究에서 新 用語로 使用한 “研究指導教授制”에 對하여 간략히 記述키로 한다.

研究指導教授란 本 研究에서 論하기 爲하여 任意로 創出한 新 用語이다. 여기서 말하는 研究指導教授란 말은 專門的인 知識背景을 지닌 主題專門司書의 機能을 가진 教授를 意味하는데 圖書館學을 專攻하지 않은 現職教授라는 點이 특징이다. 바꾸어 말하면 司書가 아닌 教授들 中에서 教授經驗이 풍부하고 德望있고 有能한 者를 任用하여 圖書館의 參考奉仕에 임하게 하는 者들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곧 參考奉仕의 機能을 보다 능률적이고 擴大 促進시키는데 있어서 制度的인 뒷받침으로서의 研究指導教授制를 創設하려는 것이다.

## II. 韓國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參考奉仕의 現實과 未來

### 1. 參考閱覽室의 利用度와 閱覽者의 不滿

첫째, 參考閱覽室의 利用度를 調査한 結果 자주 利用한다는 者는 全體의 47.1%로 나타났으며 가끔 利用한다는 者는 48.2%, 전혀 利用 아니한다는 者 4.6%를 보였다. 이를 다시 教授와 學生別로 보면 자주 利用하는 教授 33.3%, 學生 49.5%, 가끔 利用한다는 教授 62.9%, 學生 45.7%를 보이고 있다. 大學別로 順位를 보면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서울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혀 利用안하는 者가 적은것은 圖書館 利用者라면 적어도 참고열람실을 가끔은 거의 利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도서관 利用의 主 目的地는 참고열람실이 핵심인 까닭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教授가 學生들 보다 利用도가 낮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가끔 利用하는 者를 考慮할 때 參考室을 조금만 더 강화시켜 참고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利用도는 최고조에 다달을 것으로 내다보아 진다.

둘째, 參考閱覽을 利用함에 있어서 閱覽者들의 不滿을 알아 보았다. 勿論 形形色色으로 갖가지로 問題들이 提起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論者が 推定한 主要 因 몇가지를 미리 제시하여 그 反應을 調査해 보았다. 또한 이용을 안하는 者들일지라도 그 理由를 들도록 要求하였다. 그 結果, 장서不足이 가장 큰 不滿으로 나타나 全體의 41.4%를 차지 했으며, 司書의 資質 不足을 내세워 자질에 對한 회의를 느끼는 者 11.3%, 建物과 施設이 利用에 不便하다는 者가 10.2%, 利用

法의 無知를 든者 8.1%, 利用절차가 까다롭다는 者 7.0%등으로 나타났다. 參考室의 장서 不足은 1971年의 全國 圖書館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진 것으로서 現수에 있어서도 장서 부족에 對한 不滿은 如前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에 까지 과연 大學圖書館들은 얼마나 發展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外的 팽창단 하였지 內的 충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은 열람자들의 불만에서 如實히 들어나고 있는 現實이다. 한편 특기할 것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경우 司書의 資質不足을 장서 부족과 함께 큰 不滿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결과 서강대학의 경우 교수·학생 모두가 건물과 시설에 桴 단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용 안하는 者들의 主要 理由는 圖書館 利用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데에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열람실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충실한 장서 수집 정책아래 체계적으로 엄선하여 장서를 구비해 놓을 것이 急先務이며 보다 높은 利用을 爲해서는 利用法의 指導를 적극 실행해 나가는 方向을 摸索해야 될 것 같다.

### 2. 閱覽者가 바라는 參考奉仕 機能

參考奉仕의 領域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어떤 部門에만 重點을 둔 參考奉仕는 眞正 閱覽者를 爲한 奉仕가 될 수 없는 것이다. 閱覽者의 要求는 各양 各색일 것이기 때문이다. 設問에서의 기대는 參考奉仕의 機能中 어느 部門에 더 重點을 두었으면 좋겠는가 質問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現實의으로 가장 빈곤한 봉사 부문이 어떤 기능인가 하는 것을 알아 보는 것이었다. 이에 對한 反應은 대체로 고른 反應을 보여 주었는데, 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높은 反應을 보인 것이 參考奉仕의 基本的인 機能이자 핵심적 機能인 參考질의에 對한 應答과 상담 및 이를 爲한 諸般 準備를 갖출 것을 要求하고 있었다. 이른바 「備顧問」의 機能<sup>2)</sup>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곧 이 機能이 적극적으로 잘 발휘된다면 他 機能도 제대로 따라서 遂行될 것으로 分析 되는 것이다. 그리고 大學別 反應을 보면 서울大 教授가 各種 書目·索引·解題類 등 서지작성에 重點을 둘 것을 바라고 있었으며, 利用者들이 參考질의의 회답 및 상담에 높은 反應을 보인 반면에 이용안하는 者들은 문헌탐색 방법 등 利用法의 지도를 要求하는데 反應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 3. 參考閱覽室의 司書와 장서

오늘 날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엔 專門職 司書가 많이

2) 이재철, “정현전 기능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 30집(1973. 12)에서 再引用.

進出하고 있는 傾向이다<sup>3)</sup>. 그러나 이들은 거의가 일반 사서들로서 大學圖書館學料 출신자들이거나 短期 강습 과정을 거친 者가 大部分으로서 전문적인 參考司書라든지 主題專門司書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극소수에 불과한 現實이다<sup>4)</sup>. 다시 말해서 참고봉사를 능수능란하게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뚜렷한 有資格者가 기근 狀態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司書는 圖書館學 教育과정에서 보다 세분하여 실무위주에서 도서관 性格別 機能別로 區分해서 이를 基底로한 教育훈련을 받을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司書職일지라도 전문직으로서의 등급을 규정지을 必要性이 提起되며 이것 역시 하나의 課題가 될 것 같다.

閱覽者의 과반수가 參考閱覽室에는 多年間 參考業務에 경험을 가진 有能한 司書를 두기를 바라고 있었다 (54.2%). 參考奉仕의 機能과 性格을 考慮할때 參考閱覽室에는 必히 參考司書나 主題專門司書를 둘 必要가 있다. 다시 말해서 現行 大學教育 제도에서 主題 배경을 갖지 않고 교육된 도서관학과 출신 司書가 진정한 의미의 參考活動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無理인 것이다<sup>5)</sup>. 다시 열람자의 反應을 살펴보면 서강대학교 교수는 碩士학위 以上の 주제전문 司書를 두어야 한다는 데 55.5%를 나타내었다. 도서관학의 대학 교과과정이 채택되어 사서를 배출한 연료으로 보아도 과연 진정한 參考司書로서의 資格을 지닌자는 몇이나 될 것이며 有경력자 또한 몇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상기해 보더라도 역시 참고열람실의 바람직한 司書는 절대수가 不足함을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에 必要한 參考司書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傍觀만하고 있을 순 없으며 하루속히 도서관학 교육과정 또는 이에 相應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고열람실을 찾는 열람자들의 예비식 問題인데 아직 대학 교양과정에 도서관 이용법 지도 등이 제도화 되지않고 있어 問題이다. 우선 도서관과 열람자를 이어주는 주요 매개체가 장서이므로 여기서는 참고도서의 성격에 對한 선견지식을 알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63.1%가 잘 안다고 응답했으며 잘모른다는 者가 34.4%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잘 안다고 응답한者 일지라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또 진정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점이다. 無知로 인한 時間의 낭비, 정신적 혼란, 心的 不安 등은 얼마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차치하면 도서관 자체를 경멸하고 不信하게 될 우려도 없잖아 있게 될 것 같다. 대학별 반응에서 서강대학교가 가장 좋은 반응을 보여 70.7%가 잘안다고 응답해 주었는데 이것은 곧 서강대학교가 '75년 2학기부터 1학년 전체의 교양필수과목으로 도서

관학을 채택했기 때문에 얻은 좋은 결과로 풀이 된다. 앞서 열람자의 불만에서도 밝혔듯이 장서의 부족은 양적인 問題라기 보다는 질적인 問題라고 분석된다. 장서가 무조건 많다고 열람자의 만족도로 높일수 없는 것처럼 소량의 장서 일지라도 그 구성이 질적으로 충실히 갖추어져 있다면 열람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열람자들이 찾고자 하는 책이 없을때가 종종 있었다는 者 59.8%로 나타났으며 많이 있었다는 者는 28.9%를 보였다. 특히 教授들은 찾는 책이 없을때가 많았다고 하는 者가 과반수를 넘음으로서 장서의 미비도를 심각하게 느끼게 하였다. 대학별 반응에서는 홍익대학교가 그 심각성이 제일 컸으며 홍대 교수의 경우엔 59.3%가 찾는 책이 없을때가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보건데 대개의 대학도서관들이 流動性이고 合理的인 收書政策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閱覽者를 무시한 채 장서량의 확보에만 급급해 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 도서관 장서는 질적인 關心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그 대학의 教育과 研究計劃이 충분히 반영된 資料구성을 爲해서 자료의 선택과 수집의 원칙과 계획을 규제하는 수서정책이 確立되어야 한다<sup>6)</sup>.

#### 4. 圖書館에 關한 教育指導

圖書館에 關한 指導는 閱覽者 自身들을 爲해서나 大學教授를 爲해서나 圖書館을 爲해서 모두 必要한 教育이다. 이미 도서관에 관한 지도를 한 일이 있거나 받은 일이 있는 教授·學生은 37.9%로 나타났으며, 경험은 없지만 도서관에 관한 지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者가 48.5%를 보였다. 이들 모두를 합치면 86.4%의 열람자가 도서관에 관한 지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교수의 반응을 보면 이용

3) 한국도서관 통계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직원은 1967년 당시 전문직 298명, 비전문직 584명으로 33.5% : 66.5%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73년도에 와서는 전문직 30% 증가로 388명, 비전문직 19% 증가한 701명이 되었으며, 상대적 비율은 36% : 64%를 보여 대학도서관엔 점차 전문직이 많이 진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참고사서와 주제사서는 전문사서 교육과정에서 더 세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도서관학교육에 있어서는 통괄하여 일반 사서를 양성하고 있을 뿐 진정 전문화된 사서의 양성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참고사서는 참고열람실에 장기 근무하여 경험을 쌓은 者로 참고담당 사서라는 호칭으로 권한을 부여할 뿐 일정직급이나 자격 부여, 고급 사서 등으로 책임있는 완벽한 전문사서로서의 진로는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젯점이며, 주제 전문사서 역시 서구식 체도를 모방한 未來의 기대일 뿐 현실적으로 실현 단계는 못 접어들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5) 한상환, "대학도서관 참고활동 영역 확장론" 도입월보, 13.6, 1972. p.8

6) 안영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자료구성의 발전책" 도서관학회지[연세대학교] 제3호, 1967, p.48.

지도 경험자가 61.1%나 되었으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교수 또한 31.4%로 나타나 무려 92.5%가 도서관에 관한 지도를 희망하고 있었다. 문제는 또 지도경험이 있는 敎授가 과연 도서관에 관한 지도를 어느 정도 올바르게 하였는지가 의문이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와 서강대가 지도경험이 훨씬 높은 을을 보인대 비해 서울대와 홍익대가 지도경험 을이 낮았음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이용자인 이용안하는 者이든 모두가 공통으로 도서관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Ⅲ. 研究指導敎授制의 提案

#### 1. 研究指導敎授制의 意義와 機能

敎授들은 그들대로의 專門의 學門배경을 지닌 學者로서 足하고 있을 뿐 보다 한걸음 앞서 새로운 敎育을 爲해 더욱 研究 조사하고 개척하려는 의욕이 不足한 단면을 들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結局 敎授의 質을 보다 높이기 爲한 文教當局의 努力으로 敎授 再임용제 등을 실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이전에 이미 그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조사하고 학문할 수 있는 훌륭한 도장이 있었다. 즉 圖書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조사를 가능케 하고 이를 돕는 대학도서관을 그들은 輕視해 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대학도서관은 오늘날 교수에 상응할 수 있는 도서관 전문직으로서의 주제전문 司書의 확보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모르며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 주제전문사서를 확보한다는 것이 難題中 難題가 아닐 수 없다.

나날이 보다 새롭고 고도화 되는 전문적 知識과 情報의 提供, 研究指導 등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은 勿論, 많은 利用者의 증가와 보다 높은 수준의 참고질의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대학도서관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에 대응할 유능한 참고사서나 주제전문사서는 극소수임은 兩論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현재제에서 교수·학생·사서가 삼일체로 뭉쳐 대학도서관의 존립 가치를 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정상적 운영은 기대할 수 없다. 다시말해서 교수도 도서관 봉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人的으로나 재정적으로 보아 현 대학실정으로는 주제전문사서를 확보하기 어렵다. 모든 대학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人的, 物的 資源을 最大限으로 동원하여 대학도서관의 정상적이고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책 한권을 더 사들이고 사서 한사람을 더

채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있는 책 한 권이라도 더 많은 열람자에게 이용시키고 어떻게 하면 현재의 조직과 사서들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봉사를 할수 있게 할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실정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려는 것이 연구지도교수제의 제안이다. 즉 열람봉사체제의 보완적 기능으로서의 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지도교수의 기능은 그의 학문배경을 바탕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열람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즉 대학교육의 특성에서 오는 제 전공분야에 대해서 보다 깊이있고 차원 높은 문제의 참고 질의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열람자들을 위해 연구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은 도서관봉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별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므로 타 기능을 생략키로 하겠다.

#### 2. 研究指導敎授制의 構想

##### 가. 敎授의 圖書館에서 機能的 參與

우선 대학도서관 참고봉사에 있어서 司書職外 敎授의 참여지도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여부를 물어 본 結果, 必要하다고 응답한 者가 35.2%였으며, 必要할것 같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者가 39%로 나타났다. 결국 74.2%가 대학도서관에 교수의 참여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代案으로 연구지도교수제를 창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환영 찬성하는 者가 전체의 69.3%를 보였다. 대학별로 보면 홍익대학은 75%의 찬성율을 보였으며, 서울대학의 경우엔 반대자가 전혀 없었음을 알수 있었다.

##### 나. 資格, 年令, 任用

첫째, 연구지도교수의 자격은 그 대학의 現職교수일 것을 당연 원칙으로 하되 자질면에서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 결과 적급(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에 관계없이 전공분야에 정통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부분 희망하고 있었다. 즉 교수의 권위나 경험보다는 전공분야에 정통한 실력자를 원하는 경향이였다.

둘째, 연령관계를 결부시켰더니 열람자들은 연령에 상관하지 않는다는데 67.4%로 반응을 보였다.

셋째, 임용방법에 있어서는 대학별 교수회에서 해당 유자격자를 추천하고 이를 총장이 임명, 이사장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는데 반응이 높았다.

##### 다. 人員, 任期, 처우

첫째, 人員에 대한 반응은 정원을 대학 설치 학과수 만큼 해야 한다는 반응과 성황에 따라 정한다는 반응

이 다같이 35.1%를 나타내었는데 論者의 견해로는 일률적으로 정원을 제한해 두는 것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정함이 좋을 것 같다.

둘째, 임기는 가장 높은 반응이 2年으로 하고 重任이 가능케 한다는 것으로 64.8%를 보였다.

셋째, 처우에 있어서는 과장급의 보직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반응이 높아 40.7%로 나타났다.

### 라. 施設, 組織, 講義時數

첫째, 시설은 참고열람실에 인접한 곳에 독립된 연구실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반응이 높았으며,

둘째, 組織活動범위는 열람봉사와 연구지도 외에는 圖書館業務에 일체 관여 말아야 하며 校內서 수시로 教授學生이 참여한 학술토론회를 가진다는데 반응이 높았다.

셋째, 강의시수는 주당 5시간 이내로 강의를 맡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도서관 열람봉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데 51.8%를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평교수와 같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맡아야 한다는 반응도를 보였다는 점인데 이는 많은 교수들이 아직도 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거나 참고봉사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라 분석된다.

### 3. 主題專門司書와의 關係와 영향

만일 연구지도교수제가 신설 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출하게 될 주제전문사서와의 관계에 대한 심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이에 대한 설문에서 20.3%의 교수는 전문사서는 배후에서 측면지원을 해주고 연구지도교수가 공식시에만 업무대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38.8%의 교수는 전문사서도 연구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협조하면서 연구지도에 임할 것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비교 검토하건대 거의 모든 교수가 전문사서를 신뢰하고 있으며 지도교수와 동등한 입장에서 奉仕해야 할 것이라는 原則을 기저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이들 사이의 관계는 원만히 유지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끝으로 연구지도교수제가 실현 된다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설문에서 열람자의 대다수가 대학도서관은 물론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응답자 전체 369명중 68%인 251명의 열람자가 밝은 展望을 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반응을 보더라도 연구지도교수제는 대학도서관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가 한갓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전국 대학에서 제도화 될 때 연구의 의의는 더욱 커질 것이며 아울러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기

도 한다. 비록 조사대상이 표집대상을 한계로 하고 있으나 이들뿐 아니라 전국대학 도서관 열람자들의 공통적 기대일런지도 모른다.

### IV. 研究結果의 要約과 結言

과거의 參考奉仕에 關한 문헌조사 연구와 4개 종합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이용자를 표집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참고 봉사에 대한 반응과 연구지도교수제에 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우리나라 참고봉사 기능은 이미 오래전에 發生하였고 특히 이조시대의 집현전 기능에서는 그 奉仕機能이 現代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참고봉사에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이었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었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참고봉사가 전통적인 것이 아닌 19세기 후반에 들어온 美國式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문이 아니라 이미 한국 도서관에 있어서 그 기능이 뿌리를 깊이 내린지 오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圖書館 利用者는 거의가 참고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장서의 不足이었으며 이용 안하는 者들의 큰 理由는 利用法의 無知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참고열람실에는 주제전문사서 보다는 폭넓은 경력의 참고사서를 둘 것을 원하고 있으며, 참고봉사의 기능은 어느 한 部門에 치우침이 없이 諸機能을 발휘할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에 관한 지도의 경험자가 많았으며 그런 경험이 없는 교수 학생일지라도 지도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者가 大部分이었다.

3) 참고봉사에 있어서 教授의 참여지도 필요성은 응답자 대부분이 느끼고 있었으며 그 방안으로 연구지도 교수제를 제안한 데 대하여 교수·학생 공통으로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시 된다면 대학도서관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者가 많았다.

以上的 연구결과를 要約 分析해 보건대 참고봉사의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가장 合理的이고 적절한 수서정책 수립하에 장서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둘 것이 요청되며 보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에 관한 指導가 여하한 方法으로라도 全大學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참고열람실의 사서는 참고업무에 多年間 경험이 풍부하고 박식한 有能 司書를 둘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또한 이 봉사 대열에 교수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바 이의 방안으로 연구지도교수제가 범대학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이 제도는 대학도서관의 질적 발전은 물론 참고봉사를 보다 促進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大學教育의 질적

향상을 촉진시킬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大學의 目的은 자라는 세대중 最上級의 사람이 마음껏 발전할 수 있겠끔 해주는데 있는 것인 만큼 大學에서의 教育方法은 틀에 박힌 것이 되어서 안되며 教育이 知的으로 살아 있을때 그것은 個人的인 形態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學生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自由를 부여해야 하며, 그들의 정신생활을 구속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大學의 生命은 教授와 學生에게도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학생이 훌륭하지 못한 곳엔

最高로 훌륭한 教授도 무기력해질 것이다<sup>7)</sup>. 여기서 훌륭한 教授와 훌륭한 學生을 배양하고 또한 교수·학생들의 보급자리인 대학도서관을 더욱 발전 육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임은 司書에게만 지워선 안된다. 교수·학생 모두가 合心하여 그들이 아끼고 利用하지 않으면 대학도서관의 存立價値는 무너지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대학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도 이전에 대해 작성해야 할 것이다.

7) Jaspers, Karl. 대학의 이념. 민준기 역, 1973. p.166

職業이라는 것은 生計나 生業을 위하여 자기 능력에 맞는 일정한 업에 종사하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말을 좀 더 부연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계속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으며 이러한 규정이 일반적인 직업의 정의다.

이러한 직업의 종류는 오늘 날 약 3,000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각국에서는 국제조사의 필요에 따라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적당한 직업분류를 행한다. 일반적으로 대(大) 중(中) 소(小) 3항목으로 분류하며 전문직업종사자엔, 문예가, 저술가, 기자, 재판관, 변호사, 종교가, 사회복지사업가가 이에 속하며 관리직 직업종사자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회사중역 상점의 지배인이나 관리자 등이 이에 속하고 기능공에 대장쟁이, 재봉사, 목수, 미장이 등이며 단순노동자란 土工인부, 잡역부 등을 가르킨다.

또 이를 비육체적인면과 육체적인면, 도시적인면 촌락적인면으로 나누고 산업별로는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위예든 이들의 여러직업을 편의상 4群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 직업類型에는 自由業이라는 직종을 두고 있는 예도 있는데 이러한 數 많은 職業中 司書職이라는 職業에 從事하고 있는 나는 때때로 對人關係에 있어서 서로 人事를 나눌 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이때에 公務員이라고 하면 거의 빠짐없이 “어데 나가시느냐? 하는 물음이 잇달는다.

만약 나의 대답이 圖書館에 다닌다고 하면 다

계 무슨 工夫를 하느냐고 핀잔 아닌 비양조이다.

이런 저런 말대답이 귀찮아서 司書라고 대답하던 순제 東問西答이 되고 마니 이 社會에서 누구나 쉽게 아는 職業을 갖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 한이 없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過慾을 부린다면 어느 누구든 이름 三字만 대면 명함이 필요없을 程度의 人物이 되지 못함도 恨스럽다.

이 모든 生覽이 헛된 바에야 司書가 司法書士로 오해할 정도의 우리社會이니 자연 司書職이라는 명칭이 개운찮은 감을 감출 수 없다. 司書職이라는 職種이 이땅에 定着한지 數十年이 되어도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職名은 생소하기 끝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Librarian의 번역이 어떤 연유로 司書로 번역되었는지 여러 文獻을 뒤져 보아도 아직 우둔한 나의 검색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하여튼, 명칭의 사용빈도는 社會에 認識度와 正比例됨을 生覽할 때 오늘도 나는 Librarian이라는 用語가 司書라고 옮겨진 것을 못마땅하게 生覽하여 부르기 쉽고 업무내용의 설명이 必要없는 명칭은 없을까 생각해본다. 우리사회에서 상대방의 존칭을 선생님으로 바꿔 부르게 되고 You라는 二人稱號가 당신으로 직역되어 通用되기 보다는 往往 先生님이라는 상대방의 別稱으로 옮겨 갖게 되는 등 결핍하면 도서관은 市民社會에 깊이 파고드는 市民的 것으로 가장 친절하고 밀착되어야 한다면 도서관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의 직업명칭은 듣기에 썩 내키지 않는 사서로 명명되었을까.

